

여수산단 화학물질 새면 속도무책

특수소방차 낡고 개인보호장비 턱없이 부족 '불안 불안'

일선 소방서 소방차 노후화 25%로 전국 최고

구미와 청주의 불산 누출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남도소방본부의 특수소방차가 길게는 7년 이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필수 장비인 개인보호장비도 부족하고, 소방차 노후화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체의 25%에 달해 전반적인 장비 교체가 시급한 상태다.

소방서의 소방차량이 부족하거나 낡아 신규 구입을 위해 국비 144억원을 요청했다. 현재 여수산단을 관할하는 화학 119구조대 특수소방차(내폭화학차) 2대의 내용연수는 각각 7년, 4년 8개월을 초과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을 말하는 내용연수가 이처럼 지났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소방차와 방호장비, 일선

여수산단에서는 일부 공장의 시설 노후화로 최근 3년간 화재 20건, 폭발 2건, 누출 3건 등 48건의 사고가 났다.

지나해에만 6월7일 트리클로로실란 누출사고, 같은 달 19일 포스젠 누출 사고 등 2건의 누출사고가 있었다. 전남도는 특수소방차 4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27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는 375점이며,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이 필요하다.

일선 소방서의 소방차량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펌프·화차·고가차량 등의 노후도는 25%로 전국에서 낡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펌프차 207대 중 62대(30%)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화학차 17대 중 8대(47%)도 사용 가능 기간을 넘겼다. 섬지역 소방차량도 전체 16대 중 5대(31%)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2219개 섬을 11개 지역대의 소방관 20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4일 오후 '유해 물질 등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가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지역 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1000억대 횡령 서남대 설립자 보석취소 청구 법원-검찰 갈등 번지나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원 서남대 설립자 이희호씨의 보석허가로 불거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에 이씨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광주고 법에 항고하는 대신 해당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배경으로는 보석 허가의 중대 사유 소멸, 해당 재판부의 '결자해지' 촉구 등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광주고 법에 항고하는 대신 해당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배경으로는 보석 허가의 중대 사유 소멸, 해당 재판부의 '결자해지' 촉구 등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조만간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최영남 부장판사는 곧 있을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다른 재판장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씨의 보석 허가 이후 보석취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순천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어느 재판장이 이를 맡더라도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파손된 도로 메우기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14일 오전 신안동 주택가 도로에서 겨울 동안 파손돼 보행이나 차량이동에 위험한 도로를 아스콘 등으로 메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신 보여주며 조폭 행세 의류매장 종업원 감금 갈취

광주동부경찰청은 14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의류매장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강도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간 등 전과 19번인 김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7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A(여·34)씨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 1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모텔로 피해자 A씨를 불러내 감금하고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하는 등 모두 8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 전기차 사칭 주식 11억 사기

광주지검, 2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중근)는 14일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관계자로 속여 수십억 원대 장의주식을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부정거래 등)로 최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전기차 생산회사 A사의 임직원 행세를 하며 83명에게 실제 자신들이 실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던 B사의 주식 11억원 상당을 관 혐의(광주일보 1월 21일자 6면 보도)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B사가 A사와 아시아 총판 계약을 맺은 것을 이용해 수개월 안에 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이거나 자녀 취업, 공사 하도급, 가구 납품권 등 이권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와 A사는 지난해 4월에 결별했다. 최씨 등은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주당 최고 3000원에 팔아 20~3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이들에게 속아 이권을 얻으려고 영광에 전입신고까지 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폭행 꾸며 5천만원 뜯어낸 '꽃뱀 공갈단'

전남경찰, 5명 구속영장 합의 유도 경찰관 불구속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꽃뱀 공갈단'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성폭행 사건을 위장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최모(여·25)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범인 류모(44)씨는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이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순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일당들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 등 여성 2명은 이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꽃뱀' 역할을 맡았고, 조모(42)씨는 협박, 박모(49), 신모(여·43)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달아난 손모(48)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씨를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과 가담 정도가 적은 김모(40)씨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해당 경찰관의 경우 당초 범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주범 류씨의 진술에 따라 입건됐으나 류씨가 진술을 번복한데다, 경찰관도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 진위를 받아 불구속 송치기로 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

80억 횡령 여수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4일 80억 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3명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편 재판부는 여수시가 김씨를 상대로 한 61억4000만원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여수시가 선고 전 재판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은 기소된 범죄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로 재판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공금 환수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리고서도 배상명령 신청 시 기조차 놓쳐 어쩔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목포서 30대 여자 모델서 투신 숨져

14일 오전 9시40분께 목포시 죽고동 모텔 주차장에서 A(여·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남자 친구(3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 친구와 모텔에 투숙, 말다툼을 한 뒤 새벽에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남자 친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카지노서 도박자금 날리고 폭박 협박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날린 데 불만을 품고 카지노와 경찰서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서 행.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8)씨는 14일 오전 10시30분께 목포시 상동 한 모텔에서 112에 4차례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계인장은 모두 불법이므로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지난 4일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았다가 300여만원을 잃고 소란을 피우다 출입금지까지 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교육안내

- 교육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월 15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접수방법: 방문접수

원서접수처: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